



조건 제 8102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음력 4월 25일)

반도체·공공기관 유치·군공항 이전 해법 찾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1〉 풀어야 할 현안사업·과제 '수두룩'

민형배 대전환기획위, 12대 현안 발굴 목표 고민 여수섬박람회·전남의대 등 해결책 마련도 총력 G20 정상회의 유치·광역교통망 중장기 과제 검토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대전환 시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축' 균형 성장 전략을 선도한다는 포부다.

통합특별시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2·8·19면
민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를 지난 4일부터 출범했다.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 모두 7개 분과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명분에 아래 잠시 내려놓은 현안들이 선적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광남일보는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앞둔 통합특별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분야별로 점검한다.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 중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전남 공동현안 4건과 지역별 현안 8건 등 모두 12건을 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분야별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공동현안에는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정적 출범, 반도체 팹 공장 유치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0년 만의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지만 주도체계 변경과 전산

시스템 통합, 교통표지판 정비, 자치법규 개정 등 행정 전반의 대규모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보시스템 통합비 167억원, 공공시설물 정비비 242억원 등 총 573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인수위가 집중 점검하는 사안이다. 국방부가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와 주민투표, 이전부지 확정, 지원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적지 않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무안지역 군공항 건

설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 방안 마련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수위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극3축 정책에 맞춰 통합을 실현한 지역의 공공기관 우선 배치, 대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 역시 최근 "세계적 기업의 수조원 규모 전남광주 투자 계획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지역 현안으로는 5·18 역사왜곡 대

응과 자원회수시설 설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상습 침수지역 대책이 선정됐다.

특히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반발과 입지 선정 논란 등으로 세 차례 무산된 상태여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민생안정 대책, 전남 국립외과대학 신설, 국제행사 유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분류됐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다. 그러나 행사 준비와 관광객 유치 전략, 교통·숙박 대책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철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 국립외과대학 설립 역시 목포대와

순천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구축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대전환기획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을 선정해 시도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통합 이후 불문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9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사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당선인·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시의원 당선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시 출범...농협 광주·전남본부도 통합

'TF 구성' 조직개편·운영방안 검토...내년 1월 통합본부 출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맞춰 농협 조직도 통합 수순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내년 1월 통합본부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조직체계 개편과 청사 입지를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 광주·전남본부는 통합본부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농협 광주·전남본부장과 NH농협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 4명의 본부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통합체계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이광일 전남본부장이 광주·전남 통합본부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TF를 중심

으로 조직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점검, 구성원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다음달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 통합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계열사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은 특별시 조직체계가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협 안팎의 관심은 통합본부 청사 입지에 쏠리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은 중앙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본부 소재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2면으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합시의회' 첫 임사회, 내달 1일 전남도의회서 열린다

91명 당선인 사전 간담회...안전협의체 구성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시의회의 첫 임사회가 다음달 1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면
통합시의회 당선인 91명은 9일 영암 호텔 현대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회에서 첫 임사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 임사회 개최 장소 결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회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주청사 분회

의장 결정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그동안 첫 분회의장 후보지로는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제3의 장소 등이 검토됐지만, 현실적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의회 분회의장 규모는 668㎡로 광주시의회(833㎡)보다 좁지만, 의원과 집행부를 위한 좌석 수는 107석으로 66석인 광주시의회보다 많다. 도의회는 무기명

기표·전자회의 시스템도 갖춰 첫 임사회 장소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필요한 핵심 안건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특별시의회 안전 협의체 운영도 결정됐다.

안전 협의체는 공식 의결 기구가 아닌 실무 협의의 기구다. 출범 전 불거질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협의체에는 10명의 당선인이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각각 5명으로 구성해 지역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서호·박필

순 의원인, 전남에서는 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의원이 참여한다.

안전 협의체가 우선으로 다룰 핵심 안건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배분 문제다.

통합시의회 상임위는 기존 의회 체계와 통합특별시의회 기능을 반영해 11개에서 최대 14개(특별위원회 포함)까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협의체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선임 방식, 상임위원 정수, 지역·정당별 배분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규·이선하 기자 gnnews1@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9인(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동반9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동반9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단, 그린피 연체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 회원 할인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회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10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9인(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용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처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oon1@happinescc.co.kr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